

치위생학생의 윤리적 가치관에 관한 연구

강부월

동남보건대학 치위생과

색인 : 윤리적 가치관, 공리주의, 의무주의

1. 서론

과학기술의 발달은 인간의 신념이나 삶의 가치, 또는 직업적 신념에도 많은 변화를 초래하여 인간생명의 존엄성과 개인의 특성 등에 대한 가치를 변화시키고 윤리적 가치에도 변화를 주었다. 특히 생명과학과 의료기술의 눈부신 발전과 사회구조의 변화로 인해, 전통적인 절대적 도덕률만으로는 새로이 제기되는 윤리적 난제들에 대처하기 어렵게 되어, 생명과 의료 윤리의 문제를 주제로 하는 생의 윤리학(Biomedical Ethics)이 대두되게 되었다¹⁾. 생의 윤리학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문제들은 주로 삶과 죽음, 임신중절, 안락사, 자살, 선천성 기형, 장기이식, 유전공학, 인간 대상의 실험 등 다양하다. 그러나 이들은 자유, 평등, 정의, 권리, 인격성, 등과 같은 전통적인 도덕 개념과

연관되며, 의료관계종사자들은 이러한 도덕적 판단이 요구되는 심각한 상황에 자주 놓이게 되었고, 이에 따른 법적 책임과 윤리적 책임을 분별하여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상황에 자주 직면하게 되었다²⁾. 이 등³⁾은 간호사가 윤리적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는 경우 간호활동의 즉각적인 판단은 그 간호사가 가진 가치체계에 의해서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영향을 받게 되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윤리적 딜레마에 빠지게 되어 보다 많은 최대한의 이점을 가진 것으로 최선의 선택을 하게 된다고 하였으며, 이러한 선택상황에서 의사결정의 기준이 되는 것이 윤리적 가치관이라고 하였다⁴⁾. 윤리적 가치관이란 행동의 방향을 선택하는데 영향을 주는 바람직한 것 또는 해야 할 것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 또는 개념으로 이러한 윤리적 가치관의 확

연락처 : 강부월 우) 440-714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937 동남보건대학 치위생과

전화 : 031-249-6502 휴대폰 : 010-3716-6574 E-mail : kabw@dongnam.ac.kr

본 연구는 2008년 동남보건대학의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해 이루어졌음

립은 바람직한 윤리적 의사결정의 필수적인 요소라 할 수 있다^{4),5)}. 한 등⁶⁾은 간호사들이 상황에 따라서 일관된 윤리적 가치관을 가지지 못한다고 하면서 보다 수준 높은 간호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윤리적 가치관과 간호철학이 확립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에 부응하여 간호사^{2),4),7)}나 간호학생^{8),9),10)}을 대상으로 윤리적 딜레마, 도덕적 사고와 윤리적 의사결정, 윤리적 가치관 등 생명의료윤리와 관련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한편 치과위생사가 행하는 구강건강관리행위는 구체적이며 개별적인 상황 속에서 환자 대상자와 가족, 전문의료인, 동료와의 상호 교환적인 관계에 기초해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치과의료윤리도 새로이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 할 수 있으며, 치과의료윤리의 확립은 치과의사나 치과위생사들이 구강건강관리과정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복잡하고 이해가 상반되는 문제에 직면하였을 때 확고한 윤리관을 가지고 양심에 따라 소신껏 임무를 수행하는데 도움을 주게 된다. 치위생 학생들 역시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느냐 하는 것은 앞으로 그들이 전문직 치과위생사로서 행하는 치위생 행위와 직결되므로 더욱 중요시 된다. 그러나 최근까지의 치위생 윤리교육은 대학 교육과정에서 일반적인 직업윤리와 치위생 윤리강령에 대한 내용위주로 다루면서 치과위생사로서 지켜야 할 덕목교육에 치중해 온 경향이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대학교육과정에 윤리적 가치관, 윤리이론과 원칙을 포함하는 윤리교육을 강화하고 치위생 학생들로 하여금 체계적인 윤리적 사고를 통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시킬 필요가 있다. 치과

위생사가 수행하는 치위생 활동의 즉각적인 판단은 그 치과위생사가 가진 가치체계에 의해서 의식적·무의식적으로 영향을 받게 된다. 활동현장에서 치과위생사의 행동은 기준을 설정하지 않을 경우 여러 가지 오류들을 범하기 쉬우므로 치위생 행동의 원리가 필요하며, 행동선택 원리로 제시되는 것으로는 윤리이론, 윤리원리, 그리고 규칙들을 들 수 있다. 그 중 윤리원리는 크게 공리주의와 의무주의로 나눌 수 있는데, 공리주의란 결과 이전의 원인이나 의도보다는 결과적으로 나타난 선의 유무가 윤리행동의 척도가 된다는 것으로 수단은 중요시되지 않고 행위의 결과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의사결정 문제에서도 공리주의자들은 전적으로 무엇이 최선의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 하는 문제에만 관심이 있다. 반면 의무주의는 행위의 결과보다는 행동의 형태나 본질을 더 중요하게 보는 이론으로 의무주의자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존중되어야 하며 지켜져야 할 절대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지금까지 치과위생사나 치위생 학생을 대상으로 생명의료윤리나 직업윤리 문제에 대한 연구는 김 등^{11,12)}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윤리교육 경험에 따른 윤리 지식수준에 관한 연구와 강 등¹³⁾의 보건계열과 일반계열 학생들의 생명의료윤리의식에 관한 비교 연구가 있을 뿐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미래의 치과위생사가 될 치위생 학생을 대상으로 인간생명 영역, 치과위생사와 치위생 업무관계 영역, 대상자관계 영역, 협동자관계 영역에 관해 공리주의와 의무주의에 따른 윤리적 가치관을 파악하고, 타 연구에서 언급되지 않았던 학년간의

변화 및 재학 중 윤리교육 경험과 임상실습 경험이 윤리적 가치관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하여 분석함으로써 앞으로 대학 교육과정에서 접근할 수 있는 치위생 학생들의 윤리적 가치관 확립 방안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대상 및 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경기지역에 소재한 대학에서 편의 추출한 4개 대학 치위생과 재학생 중 1학년 365명, 2학년 274명, 3학년 309명을 포함한 총 948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2.2. 연구도구

본 연구에 사용한 도구는 이⁵⁾와 안¹⁰⁾이 간호사의 윤리적 가치관을 조사하기 위해 사용한 도구를 참고하여 본 연구의 특성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설문 내용은 일반적 특성 6문항, 인간생명 영역 9문항, 치과위생사와 치위생업무 관계영역 8문항, 치과위생사와 대상자 관계영역 8문항, 치과위생사와 협동자 관계영역 4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측정은 5점 척도로서 절대적 공리주의적 입장은 1점, 절대적 의무주의적 입장은 5점을 부여하였다. 즉 공리주의적 입장의 문항은 찬성 1점, 대체로 찬성 2점, 모르겠다 3점, 대체로 반대 4점, 반대 5점의 점수를 부여하였고, 의무주의적 입장의 문항에서는 찬성 5점에서부터 반대 1점까지의 점

수를 부여하여 각 영역의 윤리적 가치관을 점수화 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의무주의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였고, 최대 평점 5점에 대해 평균 2.5점을 기준으로 의무주의적 입장과 공리주의적 입장을 구분하였다. 본 연구도구의 신뢰도는 .589였다.

2.3.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의 분석은 spsswin 10.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고, 윤리적 가치관은 각 영역별로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으며, 각 영역별 윤리적 가치관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고, 일반적 특성과 각 영역별 윤리적 가치관과의 관계는 t-test, ANOVA를 실시하였고, 사후검증은 Duncan range test를 실시하였다.

3. 연구성적

3.1. 일반적 특성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학년별로는 1학년 38.5%, 2학년 28.9%, 3학년 32.6%이었다, 종교별로는 종교가 없는 자가 51.7%, 다음으로 기독교가 29.4%, 이어서 불교, 천주교, 기타 순으로 나타났으며 종교에 대한 참여도는 거의 안함인 40.6%로 가장 많았고, 대체로 열심히 31.7%, 형식적으로 함 19.0%, 대단히 열심히 8.7%인 것으로 나타났다. 임상실습 경험에 있어서는 있음 45.5%, 없

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일반적 특성	구분	N	%
학년	1	365	38.5
	2	274	28.9
	3	309	32.6
종교	기독교	279	29.4
	불교	89	9.4
	천주교	77	8.1
	기타	13	1.4
	없음	490	51.7
종교에 대한 참여도	대단히 열심히	40	8.7
	대체로 열심히	145	31.7
	형식적	87	19.0
	거의 안함	186	40.6
임상실습경험	있음	431	45.5
	없음	517	54.5
치위생직에 대한 태도	평생직으로 여길 것임	229	24.2
	가능한 오래 머물 것임	570	60.1
	잠정적으로 머물 것임	138	14.6
	택하지 않을 것임	11	1.2
윤리교육 경험	있음	227	23.9
	없음	721	76.1

음 54.5%이었고, 치위생직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는 가능한 오래 머물 것이라고 응답한 자가 60.1%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평생직으로 여길 것임 24.2%, 잠정적으로 머물 것임 14.6%, 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한 자가 1.2%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학 중 윤리교육을 받은 경험에 있어서는 있음 23.9%, 없음 76.1%인 것으로 나타났다.

3.2. 영역별 윤리적 가치관

3.2.1. 인간생명영역의 윤리적 가치관

치위생 학생의 인간생명영역의 윤리적 가치관

에 대한 평균 점수는 <표 2>와 같이 전체 평균은 3.01점으로 약간 의무주의적 입장을 보였다.

문항별로는 ‘살 가망이 없는 환자가 심장마비를 일으켰을 때 응급소생술을 실시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가 평균 4.21점으로 가장 의무주의적 입장을 보였고, 이어서 ‘심한 선천성 질환으로 살 가망이 없는 신생아에게 가능한 모든 방법을 사용하여 생명연장조치를 취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가 3.92점, ‘살 가망이 없는 환자라도 가능한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생명을 연장시키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가 3.51점으로 비교적 의무주의적 입장을 보였다.

표 2. 인간생명 영역의 윤리적 가치관

문항	찬성	대체로 찬성	모르겠다	대체로 반대	반대	M $\pm$ SD
살 가망이 없는 환자가 치료를 거부할 때, 환자의 뜻을 받아들여 생명연장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288 (30.4)	353 (37.2)	103 (10.9)	155 (16.4)	49 (5.2)	2.29 $\pm$ 1.20
환자가 살 가망이 없다는 것을 알고 안락사를 요구할 때, 환자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253 (26.7)	365 (38.5)	152 (16.0)	121 (12.8)	57 (6.0)	2.33 $\pm$ 1.17
인공호흡기로 생명을 유지하는 무의식환자의 인공호흡기 작동을 가족이 원하는 경우에 중지시키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151 (15.9)	302 (31.9)	230 (24.3)	184 (19.4)	81 (8.5)	2.73 $\pm$ 1.19
살 가망이 없는 환자라도 가능한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생명을 연장시키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221 (23.3)	269 (28.4)	271 (28.6)	147 (15.5)	40 (4.2)	3.51 $\pm$ 1.13
살 가망이 없는 환자가 심장마비를 일으켰을 때, 응급소생술이 실시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435 (45.9)	335 (35.3)	132 (13.9)	37 (3.9)	9 (0.9)	4.21 $\pm$ 0.89
심한 선천성 질환으로 살 가망이 없는 신생아에 가능한 모든 방법을 사용하여 생명연장 조치를 취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337 (35.5)	331 (34.9)	179 (18.9)	72 (7.6)	29 (3.1)	3.92 $\pm$ 1.45
질병 말기 환자에게 연구목적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여 생명연장 조치를 취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147 (15.2)	239 (25.2)	254 (26.8)	198 (20.9)	110 (11.6)	2.88 $\pm$ 1.23
임신중절은 생명존중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어떤 경우에도 실시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82 (8.6)	159 (16.8)	312 (32.9)	260 (27.4)	135 (14.2)	2.78 $\pm$ 1.14
임신중절은 생명존중에 위배되지만 양육 능력이 없는 미혼모의 경우에는 실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199 (21.0)	365 (38.5)	214 (22.6)	113 (11.9)	57 (6.0)	2.43 $\pm$ 1.12
평균 $\pm$ 표준편차	3.01 $\pm$ 0.59					

공리주의적 입장을 가장 강하게 나타낸 항목은 ‘살 가망이 없는 환자가 치료를 거부할 때 환자의 뜻을 받아들여 생명연장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가 2.29점이었고, 이어서 ‘환자가 살 가망이 없다는 것을 알고 안락사를 요구할 때 환자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가 2.33점, ‘임신중절은 생명존중에 위배되지만 양육능력이 없는 미혼모의 경우

에는 실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가 2.43점으로 비교적 공리주의적 입장을 보였다.

3.2.2. 치과위생사와 치위생 업무관계 영역의 윤리적 가치관

치위생 학생의 치과위생사와 치위생업무관계 영역에 대한 윤리적 가치관은 <표 3>과 같으며, 전체 평균은 3.62점으로 비교적 의무주의

표 3. 치과위생사와 치위생 업무관계 영역의 윤리적 가치관

문항	찬성	대체로 찬성	모르겠다	대체로 반대	반대	M±SD
치과의사의 지시나 처방에 잘못이 의심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절대적으로 따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11 (1.2)	69 (7.3)	233 (24.6)	444 (46.8)	191 (20.1)	3.78±0.89
환자보호를 위해서라면 신체억제대는 치료과정에서 자유롭게 사용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85 (9.0)	314 (33.1)	327 (34.5)	167 (17.6)	55 (5.8)	2.78±1.02
처치를 잘못했으나 환자에게 나쁜 결과가 발생되지 않았고 그것이 본인만 알고 있는 실수이면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한다.	37 (3.9)	181 (19.1)	285 (30.1)	339 (35.8)	106 (11.2)	3.31±1.02
주변에 치과질환으로 인해 심하게 고통받는 사람을 보았을 경우에 신속히 도와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474 (50)	381 (40.2)	77 (8.1)	11 (1.2)	5 (0.5)	4.38±0.72
치과위생사는 봉사직이므로 절대로 파업을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101 (10.7)	146 (15.4)	367 (38.7)	230 (24.3)	104 (11.0)	2.91±1.12
시간이 제한되었을 경우, 치료해도 후유증이 남게 되는 중증의 환자보다는, 가능한 치료효과가 빠른 경증의 환자에게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75 (7.9)	197 (20.8)	308 (32.5)	262 (27.6)	106 (11.2)	3.13±1.12
업무상 알게 된 환자의 비밀은 누설하거나 발표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631 (66.6)	209 (22.0)	85 (9.0)	15 (1.6)	8 (0.8)	4.52±0.79
환자 진료기록은 법령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경우에도 열람에 응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399 (42.1)	327 (34.5)	172 (18.1)	41 (4.3)	9 (0.9)	4.12±0.92
평균±표준편차	3.62±0.42					

적 입장을 나타냈다.

문항별로는 ‘업무상 알게 된 환자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가 4.52점으로 가장 의무주의적 입장을 보였고, 이어서 주변에 치과질환으로 인해 심하게 고통받는 사람을 보았을 때 신속히 도와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가 4.48점, ‘환자 진료기록은 법령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경우에도 열람에 응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가 4.12 점으로 의무주의적 입장을 강하게 나타냈으며, 이어서 ‘치과의사의 지시나 처방에 잘못이 의심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절대적으로 따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가 3.78점으로 비교적 의무주의적 입장을 보였다. 반면 공리주의적 입장을 가장 강하게 나타낸 항목은 ‘환자보호를 위해서라면 신체억제대는 치료과정에서 자유롭게 사용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가 2.78 점이었고, 이어서 ‘치과위생사는 봉사직이므로 절대로 파업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가 2.91점으로 약간 공리주의적 입장을 나타냈다.

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가 3.78점으로 비교적 의무주의적 입장을 보였다. 반면 공리주의적 입장을 가장 강하게 나타낸 항목은 ‘환자보호를 위해서라면 신체억제대는 치료과정에서 자유롭게 사용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가 2.78 점이었고, 이어서 ‘치과위생사는 봉사직이므로 절대로 파업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가 2.91점으로 약간 공리주의적 입장을 나타냈다.

3.2.3. 치과위생사와 대상자관계 영역의 윤리적 가치관

치위생 학생의 치과위생사와 대상자관계 영역의 윤리적 가치관은 <표 4>와 같고, 전체 평균은 3.22점으로 비교적 의무주의적 입장을 보였다.

문항별로는 가장 의무주의적 입장을 보인 항목은 ‘환자가 원하면 환자에게 치료에 관한 정보를 언제든지 알려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가 평균 4.17점으로 나타났고, 이어서 ‘환자가 매우 무례하게 말하거나 행동할 때도 치과위생사는 예의를 갖추어 최선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가 3.90점, ‘살 가망이 없는 환자에게 진단이나 예후에 관한 정보는 알려주지

않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가 3.59점이었고, ‘환자가 약에 관해 물었을 때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면 올바르게 가르쳐주지 않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가 3.44점으로 비교적 의무주의적 입장을 나타냈다. 공리주의적 입장을 가장 강하게 보인 항목은 ‘환자가 자신의 자살계획을 알려주면서 비밀보장을 요청할 경우 이를 지켜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가 2.07점으로 나타났고, 이어서 ‘업무수행과정에서 치과위생사의 의견이 환자와 맞지 않는 경우에 환자가 치과위생사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가 2.73점으로 약간 공리주의적 입장을 보였다.

표 4. 치과위생사와 대상자관계 영역의 윤리적 가치관

문항	찬성	대체로 찬성	모르겠다	대체로 반대	반대	M±SD
업무수행과정에서 치과위생사의 의견이 환자의 의견과 맞지 않는 경우에 환자가 치과위생사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79 (8.3)	340 (35.9)	321 (33.9)	174 (18.4)	34 (3.6)	2.73±0.97
환자가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처치나 도움을 거부할 때 환자의 뜻에 따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91 (9.6)	294 (31.0)	266 (28.1)	210 (22.2)	87 (9.2)	2.90±1.12
환자가 자신의 자살계획을 알려주면서 비밀보장을 요청할 경우 이를 지켜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361 (38.1)	309 (32.6)	172 (18.1)	62 (6.5)	44 (4.6)	2.07±1.11
환자가 원하면 환자에게 치료에 관한 정보를 언제든지 알려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417 (44.0)	347 (36.6)	124 (13.1)	48 (5.1)	12 (1.3)	4.17±0.92
살 가망이 없는 환자에게 진단이나 예후에 관한 정보는 알려주지 않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32 (3.4)	107 (11.3)	274 (28.9)	342 (36.1)	193 (20.4)	3.59±1.03
환자가 매우 무례하게 말하거나 행동할 때도 치과위생사는 예의를 갖추어 최선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296 (31.2)	396 (41.8)	151 (15.9)	79 (8.3)	26 (2.7)	3.90±1.02
지나치게 여러 가지 요구를 하는 환자는 문제성 환자이므로 자극하지 않기 위해 되도록 피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73 (7.7)	251 (26.5)	313 (33.0)	245 (25.8)	66 (7.0)	2.98±1.05
환자가 약에 관해 물었을 때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면, 올바르게 가르쳐주지 않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55 (5.8)	128 (13.5)	280 (29.5)	319 (33.6)	166 (17.5)	3.44±1.10
평균±표준편차	3.22±0.41					

3.2.4. 치과위생사와 협동자관계 영역의 윤리적 가치관

치위생 학생의 치과위생사와 협동자 관계 영역의 윤리적 가치관은 <표 5>와 같으며, 전체 평균은 3.90점으로 비교적 의무주의적 입장을 강하게 나타냈다. 문항별로는 ‘동료 치과위생사가 업무 중 무균술을 지키지 않을 때 즉시 그에게 충고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가 4.54점으로 가장 강한 의무주의적 입장을 보였고, 이어서 ‘치과의사나 동료 치과위생사가 환자 진료기록 내용을 바꿔달라고 요청하면 이에 따라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가 3.90점, ‘업무수행과정에서 동료 치과위생사의 실수를 발견한다면 모른 척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가 3.87점, ‘본인이 수석 치과위생사로 지목되고 있으나 동료가 더 책임자로 생각되는 경우 상사에게 동료에 관한 얘기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가 3.29점으로 나타나 전 항목에서 의무주의적 입장을 나타냈다.

3.4. 윤리적 가치관의 영역간 상관관계

윤리적 가치관의 영역간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치위생업무 관계 영역과 인간생명 영역은 상관관계수가 .187, 대상자관계 영역은 .247, 협동자관계 영역은 .373으로 강도는 약하지만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고($p < .001$), 대상자관계 영역과 협동자관계 영역은 상관관계수 .162로 약한 양의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3.5. 일반적 특성과 윤리적 가치관의 관계

치위생 학생의 일반적 특성과 윤리적 가치관의 관계를 조사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인간생명 영역의 윤리적 가치관에 있어서는 학년, 종교, 종교에 대한 참여도, 치위생직에 대한 태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별로는 2학년 3.05점, 1학년

표 5. 치과위생사와 협동자관계 영역의 윤리적 가치관

문항	찬성	대체로 찬성	모르겠다	대체로 반대	반대	M±SD
동료 치과위생사가 업무 중 무균술(소독관리)을 지키지 않을 때 즉시 그에게 충고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587 (61.9)	299 (31.5)	48 (5.1)	13 (1.4)	1 (0.1)	4.54±0.66
치과의사나 동료치과위생사가 환자진료기록 내용을 바꿔달라고 요청한다면 이에 따라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20 (2.1)	41 (4.3)	247 (26.1)	350 (36.9)	290 (30.6)	3.90±0.95
업무수행 과정에 동료치과위생사의 실수를 발견한다면 모른 척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7 (0.7)	57 (6.0)	216 (22.8)	444 (46.8)	224 (23.6)	3.87±0.86
본인이 수석(책임) 치과위생사로 지목 되고 있으나 동료가 더 책임자로 생각 되는 경우 상사에게 동료에 관한 얘기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78 (8.2)	118 (12.4)	350 (36.9)	259 (27.3)	143 (15.1)	3.29±1.11
평균±표준편차	3.90±0.56					

표 6. 윤리적 가치관의 영역간 상관관계

영역	인간생명	치위생 업무관계	대상자관계	협동자관계
인간생명 영역	1.000			
치위생 업무관계 영역	.187 (p=.000**)	1.000		
대상자관계 영역	.003 (p=.921)	.247 (P=.000**)	1.000	
협동자관계 영역	.058 (P=.077)	.373 (P=.000**)	.162 (P=.000**)	1.000

**P<0.01

3.03점, 3학년 2.93점으로 3학년보다 2학년이나 1학년에서 더 의무주의적 입장을 나타냈다. 종교별로는 기독교나 천주교를 믿는 학생들이 각각 3.15점, 3.05점으로 종교가 없는 학생들의 평균 2.92점 보다 높아 더 의무주의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종교에 대한 참여도별로는 대단히 열심히 한다고 응답한 집단의 평균이 3.29점, 참여가 거의 없다고 응답한 집단이 2.97점으로 종교에 대한 참여도가 높을수록 보다 더 의무주의적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위생직에 대한 태도별로는 치위생직을 평생직으로 생각하는 집단의 평균이 3.69점, 치위생직을 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한 집단의 평균점이 3.31로 나타나 치위생직을 평생직으로 생각할수록 의무주의적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과위생사와 치위생 업무관계 영역의 윤리적 가치관에 있어서는 학년, 종교에 대한 참여도, 치위생직에 대한 태도, 윤리교육 경험 유무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별로는 1학년 3.24점, 2학년 3.21점, 3학

년 3.19점으로 나타나 저학년일수록 조금 더 의무주의적 입장을 보였다. 종교에 대한 참여도별로는 대단히 열심히 한다고 응답한 집단이 3.78점, 거의 안한다고 응답한 집단이 3.56점으로 종교에 대한 참여가 높을수록 더 의무주의적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위생직에 대한 태도별로는 치위생직을 평생직으로 여길 것이라고 응답한 집단이 3.69점, 치위생직을 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한 집단이 3.31점으로 나타나 치위생직을 평생직으로 생각할수록 더 의무주의적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리교육 경험 유무별 윤리적 가치관은 교육받은 경험이 있는 집단이 3.66점, 경험이 없는 집단이 3.60으로 윤리교육 경험이 있는 집단에서 약간 더 의무주의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과위생사와 대상자관계 영역의 윤리적 가치관에 있어서는 윤리교육 경험 유무에 따라 매우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명의료윤리나 직업윤리에 관한 교육 경험이 있는 집단이 3.31점, 경험이 없는 집단이 3.19점으로

나타나 윤리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을수록 더 의무주의적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과위생사와 협동자관계 영역의 윤리적 가

치관에 있어서는 학년, 치위생직에 대한 태도, 윤리교육경험 유무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별로는 1학년 4.02점, 2

표 7. 일반적 특성과 영역별 윤리적 가치관의 관계

구분	특성	인간생명 영역	치위생업무관계 영역	대상자관계 영역	협동자관계 영역
학년	1학년(a)	3.03±.60	3.24±.42	3.58±.43	4.02±.55
	2학년(b)	3.05±.57	3.21±.41	3.56±.40	3.82±.53
	3학년(c)	2.93±.59	3.19±.40	3.58±.39	3.80±.57
	F(p)	3.694(.025*) c > a,b	8.156(.000**) a > b,c	1.384(.251)	17.087(.000**) a > b,c
종교	기독교(a)	3.15±.62	3.65±.42	3.22±.39	3.94±.55
	불교(b)	2.92±.57	3.56±.43	3.27±.42	3.87±.57
	천주교(c)	3.05±.61	3.61±.43	3.26±.42	3.84±.55
	기타(d)	3.35±.64	3.47±.43	3.16±.39	3.65±.64
	없음(e)	2.92±.56	3.60±.40	3.20±.42	3.88±.56
	F(p)	8.249(.000**) d > b,c,e	1.520(.194)	.704(.589)	1.328(.258)
종교에 대한 참여도	대단히 열심히(a)	3.29±.74	3.78±.45	3.27±.40	4.06±.55
	대체로 열심히(b)	3.18±.59	3.64±.45	3.26±.43	3.90±.54
	형식적(c)	3.13±.58	3.67±.39	3.22±.36	3.95±.55
	거의 안함(d)	2.97±.60	3.56±.41	3.20±.40	3.84±.57
	없음(e)	2.92±.56	3.60±.40	3.20±.42	3.88±.56
	F(p)	9.135(.000**) a,b > e	3.006(.018*) a > b,d,e	.815(.516)	1.622(.167)
치위생직에 대한 태도	평생직으로 유지(a)	3.15±.61	3.69±.46	3.25±.43	4.02±.55
	가능한 오래 유지(b)	2.97±.58	3.59±.39	3.20±.41	3.87±.54
	잠정적 유지(c)	2.92±.56	3.60±.42	3.23±.41	3.83±.58
	택하지 않음(d)	2.90±.75	3.31±.46	3.04±.26	3.22±.42
	F(p)	6.123(.000**) a > b,c,d	5.178(.001**) a,b,c > d	1.566(.196)	10.309(.000**) a,b,c > d
임상실습 경험	있음	2.97±.60	3.61±.40	3.21±.40	3.86±.57
	없음	3.03±.58	3.61±.43	3.22±.42	3.92±.55
	t(p)	-1.448(.149)	.088(.930)	-.352(.725)	-1.663(.097)
윤리교육 경험	있음	3.01±.62	3.66±.41	3.31±.44	3.97±.54
	없음	3.00±.58	3.60±.41	3.19±.40	3.87±.56
	t(p)	.179(.858)	2.126±(.034*)	3.706(.000**) 3.706(.000**)	2.479(.013*)

**p<0.01, *p<0.05. a,b,c,d,e는 사후분석 결과임.

학년 3.82점, 3학년 3.80점으로 나타나 저학년 일수록 의무주의적 입장을 강하게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위생직에 대한 태도별로는 평생직으로 여길 것이라고 응답한 집단이 4.02점, 치위생을 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한 집단에서 3.22점으로 나타나 치위생직을 평생직으로 생각할수록 더 의무주의적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리교육 경험유무별로는 윤리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집단이 3.97점, 경험이 없는 집단이 3.87점으로 나타나 윤리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집단에서 더 의무주의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총괄 및 고안

윤리적 가치관이란 행동의 방향을 선택하여 영향을 주는 바람직한 것 또는 해야 할 것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 또는 개념이다⁴⁾. 윤리적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은 의료관계종사자들은 의사결정의 판단기준이 되는 윤리적 가치관을 확립해야 하며 이의 수립은 개인과 사회를 발전시킬 수 있는 행동원리에 기초되어야 한다. 행동선택원리로 제시되는 것 중 윤리원리는 크게 공리주의와 의무주의로 나눌 수 있다. 우리나라 간호계에서는 의무주의를 기저로 하고 공리주의적 입장을 일부 받아들이는 절충적 의무주의 입장을 선택하여 원칙들간의 상충이 있을 경우에는 의무주의적 입장을 취하는 경향이 있다³⁾. 본 연구에서는 치위생 학생들의 윤리적 가치관을 공리주의적 입장과 의무주의적 입장에서 조사 분석하였다.

치위생 학생들의 인간생명 영역의 윤리적 가치관은 ‘살 가망이 없는 환자가 심장마비를 일으켰을 때 응급소생술을 실시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가 평균 4.21점으로 가장 의무주의적 입장을 나타내 안 등¹⁰⁾이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와 일치하였다. 공리주의적 입장을 보인 항목은 ‘살 가망이 없는 환자가 치료를 거부할 때 환자의 뜻을 받아들여 생명연장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가 2.29점이었고, 이어서 ‘환자가 살 가망이 없다는 것을 알고 안락사를 요구할 때 환자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가 2.33점으로 나타났다. ‘임신중절은 생명존중에 위배되지만 양육능력이 없는 미혼모의 경우에는 실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가 2.43점으로 공리주의적 입장을 보였다. 이는 안 등¹⁰⁾의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와 유사하였으며 생명연장조치 중단이나 안락사 행위가 욕구의 좌절보다는 만족을 더 많이 가져올 것이라는 생각을 나타내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임신중절에 있어서는 생명의 존엄성보다는 자신의 운명과 미래에 대한 책임을 감당하는 부모의 책임 있는 행위를 중요시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전체적으로 볼 때 인간생명영역의 윤리적 가치관의 평균 점수는 3.01점으로 나타나 안 등¹⁰⁾의 간호학생 대상의 2.96점과 유사한 결과로 약간 의무주의에 가까운 특성을 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이⁵⁾와 홍⁴⁾의 연구와 간호학생 대상의 안 등¹⁰⁾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로서 치위생 학생들은 개인의 남아 있는 삶과 삶의 질을 고려하여 생명을 구할 것인지 치료를 하지 않을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

이 옳다고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생명의 존엄성을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치위생 학생의 치과위생사와 치위생 업무관계 영역의 윤리적 가치관은 문항별로는 ‘업무상 알게 된 환자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가 4.52점으로 가장 의무주의적 입장을 보였고, 이어서 ‘주변에 치과질환으로 인해 심하게 고통받는 사람을 보았을 때 신속히 도와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가 4.48점, ‘환자 진료기록은 법령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경우에도 열람에 응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가 4.12 점으로 의무주의적 입장을 강하게 나타냈으며, 이는 어떤 상황에서도 환자의 비밀은 유지되어야 한다는 점을 중요시하고 돕는 전문직업인으로서 역할과 소명의식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이상의 결과는 이⁵⁾, 홍⁴⁾ 안 등¹⁰⁾의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공리주의적 입장을 나타낸 항목은 ‘환자보호를 위해서라면 신체억제대는 치료과정에서 자유롭게 사용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가 2.78 점이었고, 이어서 ‘치과위생사는 봉사직이므로 절대로 파업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가 2.91점으로 안 등¹⁰⁾의 연구결과와 유사하였으나 평균점수가 다소 높게 나타나 간호학생이 치위생 학생보다 공리주의적 입장을 더 강하게 취하고 있는 것으로 비교되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치위생 학생의 치과위생사와 치위생 업무관계 영역의 윤리적 가치관의 평균 점수는 3.62점으로 안 등¹⁰⁾의 간호학생 대상의 3.11점보다 높아 의무주의적 입장을 더 강하게 나타냈다. 이는 치위생 학생들은 환자의 건강과 생명보호를 환자의 알 권리와 자율적 의사결정의 권

리보다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전문직업인으로서 치과위생사의 역할에 충실할 것으로 해석되어 바람직한 결과라고 사료된다.

치위생 학생의 치과위생사와 대상자관계 영역의 윤리적 가치관은 문항별로는 의무주의적 입장을 강하게 보인 항목은 ‘환자가 원하면 환자에게 치료에 관한 정보를 언제든지 알려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가 평균 4.17점으로 나타났고, 이어서 ‘환자가 매우 무례하게 말하거나 행동할 때도 치과위생사는 예의를 갖추어 최선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가 3.90점으로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한 안 등¹⁰⁾의 연구결과와 순서의 차이는 있으나 유사한 결과로서 대상자의 언행과 관계없이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자세와 환자에게 진실을 말해야 한다는 정직의 원리를 중요시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공리주의적 입장을 가장 강하게 보인 항목은 ‘환자가 자신의 자살계획을 알려주면서 비밀보장을 요청할 경우 이를 지켜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가 2.07점으로 나타나 점수의 차이는 다소 있으나 안 등¹⁰⁾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고, 이는 환자의 비밀유지 등 권리를 중시하는 것보다는 생명의 고귀함을 더 먼저 생각한 결과라고 생각된다. 전체적으로 볼 때, 치과위생사와 대상관계 영역의 윤리적 가치관의 평균점수는 3.22점으로 의무주의적 입장을 보였으며 안 등¹⁰⁾의 간호학생 대상의 3.17점과 거의 유사하였다. 이는 치위생 학생들이 대체로 어떤 상황에서도 존중되고 지켜져야 할 가치로서 환자의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을 지키는 것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전문직업인으로서 치과위생사의 책임과 의무를 규정하는 도덕적 규칙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나타내는 결과라고 해석된다.

치위생 학생의 치과위생사와 협동자관계 영역의 윤리적 가치관은 문항별로는 '동료 치과위생사가 업무 중 무균술을 지키지 않을 때 즉시 그에게 충고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가 4.54점으로 가장 강한 의무주의적 입장을 보였고, 기타 항목에서도 모두 의무주의적 입장을 보였으며, 안 등¹⁰⁾의 연구결과보다 점수는 다소 낮았으나 유사하였다. 이는 동료 간의 의리보다는 환자의 건강과 생명보호를 더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직업에 대한 사명감이 투철하며 비윤리적인 것은 거부할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자신의 이익보다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학생이 많은 것으로 해석된다. 전체적으로 볼 때, 치과위생사와 협동자 관계 영역의 윤리적 가치관은 평균점수는 3.90점으로 안 등¹⁰⁾의 간호학생 대상의 4.14점보다 다소 낮았으나 비교적 강한 의무주의적 입장을 나타냈다. 이는 전문직업인으로서 마땅히 취해야 할 이타주의와 직업에 대한 사명감이 투철한 것으로 사료되어 바람직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윤리적 가치관의 영역간 상관관계는 치위생 업무관계 영역과 인간생명 영역, 대상자관계 영역 및 협동자관계 영역간, 그리고 대상자관계 영역과 협동자관계 영역간의 윤리적 가치관은 비록 강도는 약하지만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치위생 업무관계 영역이 의무주의일수록 인간생명 영역, 대상자관계 영역 및 협동자관계 영역에서도 의무주의적 입장을 취하고 있었고, 대상자 관계 영역이 의무주의일수록 협동자관계 영역에서도 의무주의

적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 검토되었다. 이는 협동자관계 영역과 인간생명 영역 및 대상자관계 영역에서만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안 등¹⁰⁾의 연구결과와 비교할 때 협동자관계 영역과 대상자관계 영역간의 상관관계만 일치하였다.

일반적 특성과 영역별 윤리적 가치관과의 관계는 인간생명 영역에 있어서는 학년($p < .05$), 종교($p < .001$), 종교에 대한 참여도($p < .001$), 치위생직에 대한 태도($p < .001$)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저학년일수록, 종교가 있는 집단에서, 종교에 대한 참여도가 높을수록, 치위생직을 평생직으로 생각하는 집단일수록 더 의무주의적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으며 이는 안 등¹⁰⁾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치과위생사와 치위생 업무관계 영역에서는 학년($p < .001$), 종교에 대한 참여도($p < .05$), 치위생직에 대한 태도($p < .01$), 윤리교육 경험 유무($p < .05$)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즉, 저학년일수록, 종교에 대한 참여도가 높을수록, 치위생직을 평생직으로 생각할수록, 윤리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집단일수록 더 의무주의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점수가 나타난 경향은 유사하였으나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이⁵⁾, 홍⁴⁾, 안 등¹⁰⁾의 연구결과와는 상이한 결과를 나타냈다. 치과위생사와 대상자관계 영역의 윤리적 가치관에 있어서는 윤리교육 경험 유무에 따라 매우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즉 윤리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집단에서 더 의무주의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타 요인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이⁵⁾, 홍⁴⁾ 안 등¹⁰⁾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치과위생사와 협동자 관계 영역에서는 학년($p < .001$), 치위생직에 대한 태도($p < .001$), 윤리교육경험 유무($p < .05$)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저학년일수록, 치위생직을 평생직으로 생각할수록, 윤리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집단일수록 더 강한 의무주의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년이나 윤리교육경험을 포함하지 않고 연구한 이⁵⁾, 홍⁴⁾, 안 등¹⁰⁾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일반적 특성 중 임상실습 경험유무에 따라서는 모든 영역에서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이는 임상실습을 통해 환자들을 직접 대한 경험 유무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으로 당초 예상했던 것과는 다른 결과로서 짧은 임상실습이 학생들의 윤리적 가치관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며 추후 경력 있는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를 통해 비교해 볼 가치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치위생 학생들의 윤리적 가치관은 이미 오래전에 연구된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와 비교할 때 큰 차이가 없었으며, 대체적으로 의무주의를 기반으로 공리주의적 입장을 일부 받아들이는 절충적 의무주의 입장을 취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모든 영역에서 비교적 일정한 윤리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다. 특히 저학년이고 종교가 있으며 종교에 대한 참여도가 높고 치위생직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이며 윤리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을수록 더 의무주의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조사대상이 수도권에

위치한 일부 대학의 치위생 학생을 편의추출하였기 때문에 연구결과의 일반화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하며, 추후 연구에서는 치과위생사나 치위생 학생의 윤리적 가치관을 조사할 수 있는 보다 타당한 도구의 개발이 필요하고, 재학 중 치위생 윤리교육이 윤리적 가치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구체적 분석 그리고 치과의료보건 현장에서 실제로 활동하고 있는 치과위생사 대상의 윤리적 가치관에 관한 비교 연구도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다.

5. 결론

본 연구는 치위생 학생들의 윤리적 가치관을 파악하기 위해 수도권에 위치한 4개 대학의 학생 94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인간생명 영역에서는 평균 3.01점으로 약간 의무주의적 특성을 보였다. 가장 의무주의적 특성을 보인 항목은 ‘살 가망이 없는 환자가 심장마비를 일으켰을 때 응급소생술을 실시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가 4.21점이었고, 가장 공리주의적 입장을 나타낸 항목은 ‘살 가망이 없는 환자가 치료를 거부할 때 환자의 뜻을 받아들여 생명연장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가 2.29점이었다.
2. 치과위생사와 치위생 업무관계 영역에서는 평균 3.62점으로 의무주의적 특성을 보였다.

가장 의무주의적 입장을 보인 항목은 ‘업무상 알게 된 환자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가 4.52점이었고, 공리주의적 입장을 가장 강하게 나타낸 항목은 ‘환자보호를 위해서라면 신체억제대는 치료과정에서 자유롭게 사용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가 2.78 점이었다.

3. 치과위생사와 대상자관계 영역에서는 평균 3.22점으로 의무주의적 특성을 보였다. 가장 의무주의적 입장을 보인 항목은 ‘환자가 원하면 환자에게 치료에 관한 정보를 언제든지 알려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가 평균 4.17이었고, 가장 공리주의적 압장을 보인 항목은 ‘환자가 자신의 자살계획을 알려주면서 비밀보장을 요청할 경우 이를 지켜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가 2.07점이었다.

4. 치과위생사와 협동자관계 영역에서는 평균 3.90점으로 의무주의적 특성을 강하게 보였다. 가장 의무주의적 특성을 보인 항목은 ‘동료 치과위생사가 업무 중 무균술을 지키지 않을 때 즉시 그에게 충고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가 4.54점이었고, 모든 항목에서 의무주의적 특성을 보였다.

5. 윤리적 가치관의 영역간 상관관계는 치위생 업무관계 영역과 인간생명 영역, 대상자관계 영역 및 협동자관계 영역, 대상자관계 영역과 협동자관계 영역간에 매우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6. 일반적 특성과 윤리적 가치관과의 관계는 인간생명 영역에서는 학년($p < .05$), 종교($p < .001$), 종교에 대한 참여도($p < .001$), 치위생직에 대한 태도($p < .001$)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위생 업무관계 영역에서는 학년($p < .001$), 종교에 대한 참여도($p < .05$), 치위생직에 대한 태도($p < .01$), 윤리교육 경험 유무($p < .05$)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상자관계 영역에서는 윤리교육 경험 유무에 따라 매우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p < .001$), 협동자관계 영역에서는 학년($p < .001$), 치위생직에 대한 태도($p < .001$), 윤리교육경험 유무($p < .05$)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 치위생 학생들의 보다 바람직한 윤리관 확립을 위해서는 재학 기간 중 치위생직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도록 유도하고, 대학 교과과정에 생명의료윤리나 직업윤리교육의 강화가 필요하며, 윤리적 가치관을 측정할 수 있는 타당한 도구의 개발과 재학 중 윤리교육이 윤리적 가치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후속연구가 계속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참고문헌

1. 홍여신. 간호윤리학. 대한간호협회 출판부; 2008.
2. 한성숙. 간호사들이 임상에서 경험하는 윤리적 딜레마의 실상과 의사결정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2.
3. 이귀향, 이영복. 간호사회학. 서울:수문사;1999.
4. 홍영숙. 임상간호사의 윤리적 가치관에 관한 조사연구. 적십자 간호대학 논문집 1991;13:1-29.
5. 이영숙. 간호사의 윤리적 가치관에 관한 연구. 대한간호학회지 1990;20(2):249-270.
6. 한성숙, 안성희. 간호학생의 도덕적 사고와 윤리적 딜레마 상황에서의 의사결정. 간호행정학회지 1995;1(1):5-19.
7. 육점희. 간호사와 입원환자가 지각하는 간호사의 윤리의식 정도.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2.
8. 한성숙, 안성희. 간호의 윤리적 딜레마에 관한 개념 분석. 중앙의학 1992;57(1):55-68.
9. 한성숙, 안성희. 간호윤리교육이 간호학생의 도덕적 사고와 윤리적 딜레마 상황에서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효과. 간호행정학회지 1995;1(2):268-284.
10. 안은경, 구옥희, 김태숙. 간호학생의 윤리적 가치관. 간호행정학회지 1998;4(1):19-32.
11. 김윤정, 박정숙. Ethical perception from practice of ethics education. 한국치위생교육학회지 2007;7(2):115-122.
12. 김윤정, 장윤정. Ethical knowledge perception and related factors in department of public health students. 한국치위생교육학회지 2008;8(1):37-43.
13. 강지혜, 김해주, 김희선 외 6인. 보건계열과 일반계열 학생들의 생명의료윤리의식 비교 연구. 전북과학대학 치위생과 학술지 2008;3(1):11-20.

Abstract

A study on the ethical values of dental hygiene students

Boo-Wol Kang

Dept. of Dental Hygiene, Dongnam Health College

Key word : ethical values, deontological, utilitarianism

Objectives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thical values of dental hygiene students and set up the way of ethic education in educational course.

Methods: The subjects in this study were 948 students in four colleges located in the metropolitan area, on whom a survey was conducted.

Results :

1. Regarding values of human life, they got a mean of 3.01, which showed that they sort of took a deontological view.
2. As to values of dental hygiene duties, they got a mean of 3.62, which indicated that they took a deontological view.
3. Concerning values of clients, they got a mean of 3.22, which implied that they took a deontological view.
4. As for values of collaborators, they got a mean of 3.90, which denoted that they took a very deontological view.
5. In regard to correlation among each part of their ethical values, there was a very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their views of dental hygiene duties and human life, and between their views of clients and collaborators($p < .001$).
6. As to the relationship of general characteristics to ethical values, they took a sig-

nificantly different view of human life according to academic year($p<.05$), religion($p<.001$), religious enthusiasm($p<.0010$) and attitude to the occupation of dental hygienist($p<.001$). Academic year

Conclusions : Regarding ethical values of dental hygiene students which showed that they took a deontological view than utilitarianism view in all parts. Accordingly, In order to establish desirable ethical values, it was scrutinized that reinforcement of education on biomedical ethics and professional ethics in curriculum was needed.

접수일 - 2009.10.29 수정일 - 2009.12.21 게재확정일 - 2010. 1.15